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얼굴들

베이징발 金·金·金 ... 국민들 모처럼 웃었다

4년전 실적 아픔 딛고 한국 수영 세계 정상에

수영 자유형 400m 박태환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수영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은 변방에 머물던 한국 수영의 위상을 단숨에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린 기린아...



해였다. 8월 범태평양수영대회에서 아시아 신기록 2개를 세우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수확한 박태환은 12월에 열린 도하아시안게임에서는 자유형 200m와 400m, 1,500m를 모두 휩쓸어 3관왕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직후 태릉선수촌을 나오며 노민상 감독과 결별한 박태환은 후원사인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드가 꾸린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그랜드 해켓(호주)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8월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에서 다시 한번 해켓을 무너뜨린 박태환은 11월 FINA 경영월드컵 3개 시리즈에서 3연속 3관왕에 오르며 올림픽 금메달 꿈을 키워갔다.

태릉선수촌에서 노민상 감독과 결별한 박태환은 24주 간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낸 박태환은 결국 한국 수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10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주현정, 윤옥희, 박성현(왼쪽부터)이 금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성실·안정된 기술 갖춘 '대기만성' 여궁사

양궁 여자 단체전 주현정

곡성 출신의 주현정(26·현대모비스)이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맏언니 주현정은 10일 베이징 올림픽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궁 단체 결승전에서 박성현(25·전북도청), 윤옥희(23·예천군청) 두 동생과 이끌고 한국 양궁 역사를 새로 완성했다.

주체육고등학교를 거친 뒤 현대 모비스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긴박한 결승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주현정이지만 선수 생활이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꾸준한 실력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주현정은 국가대표와는 인연이 많았다. 지난 4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2008년 제2차 양궁월드컵이 생애 첫 국제무대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준 주현정은 양궁을 접고 싶었다.

주현정의 은사인 윤종찬(51) 광주체육고 양궁감독은 "성실함과 안정된 기술을 바탕으로 뒤늦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애제자의 금메달 수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 감독은 주현정의 낙천적인 성격에 최대 감동으로 꼽았다.

윤 감독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웃는 여유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현정은 긍정적인 성격으로 장기간 큰 기복 없이 선수 생활을 해오고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던 현정이가 금메달의 영예를 안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판... 한판... 한판... 한판... 한판 '3인자의 불운' 한방에 메쳤다

유도 남자 60kg급 최민호

9일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6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민호(28·한국마사회)는 종합 대회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선수였다.



작은 체구지만 엄청난 힘을 뽐내 별명도 '작은 거인'이다.

특히 대표팀에서 성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훈련에 열중하고 자기 관리가 뛰어난 선수로 잘 알려져 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김천 모암초등학교 5학년 때 사촌 형의 권유로 처음 유도를 시작했다. 이후 김천 모암중학교, 경산 진랑고등학교를 거쳐 유도 명문 용인대를 나왔다. 아버지 최수원 씨와 어머니 최정분 씨 사이의 2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아직 미혼이며 유도 공인 4단, 장래 희망은 교수다.

"장하다 우리딸" 곡성 종방마을 '덩실덩실'

주현정 고향집 표정

"우~와 우리 딸이 드디어 금메달을 따구나. 우리 딸이 최고여 최고."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였다.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했다. 여자 양궁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 주현정 선수의 아버지 주진규(51)씨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야 환희를 만끽했다.



양궁 여자단체전 금메달이 확정된 10일 오후 곡성군 입면 송전4구 종방마을 주현정 선수의 고향집에 모여있던 아버지 주진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씨 등 가족들과 주민 40여명이 '금빛 낭보'에 환호하고 있다.

아버지는 담배로 긴장을 달래기 위해 수차례 안방 문턱이 닳도록 왔다갔다했다. 어머니 이점례(47)씨와 언니 선라(28)씨는 베이징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지켜봤다.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자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경기 초반부터 중국 선수들을 조금씩 따돌리며 선전하자 주진규씨의 콧수염이 조금씩 풀렸다. 경기 중후반 점수가 크게 벌어지자 가족과

주민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승리를 확인했다.

마지막 화살이 과녁에 꽂히는 순간 환호성이 마을을 떠나가도록 울렸다. 주씨는 "대회 며칠 전 딸이 '금메달을 꼭 따오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기쁘고 자랑스럽다. 맘 고생이 많았는데 굳은 각오로 훈련을 열심히 해 금메달을 이뤘다"고 감격

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이장 진교선(46)씨는 "마을의 영광이다. 꼭 해낼 줄 알았다. 그동안 주 선수를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님이 고생이 많았다"며 "마을의 경사인 만큼 주현정 선수가 고향에 내려오면 마을 잔치를 베풀어야겠다"고 말했다.

서향순 키드 금맥 이었다

"올림픽 단체전 6연패를 달성해준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 후배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고향인 곡성과 학교 후배인 주현정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4년전인 1984년 18살 고교생으로 미국 LA올림픽에 출전해 여자 개인 금메달을 딴 서향순(41·미국 거주)씨는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획득에 감격해했다.

곡성 동향·광주 동명여중 후배

서 "주현정 너무 자랑스럽다"

가족은 알고 지내는 사이다. 서씨의 15년 후배인 주현정 선수가 '한국 양궁 본향'인 호남 양궁맥을 이은 셈이다.

활을 내려놓은 서씨는 14년 전부터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생활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양궁캠프를 운영하며, 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양궁을 가르치고 있다. 공사의 본능이 다시 활을 잡게 한 것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의 제자 10명과 한국으로 건너온 서씨는 베이징 올림픽 여자 양궁단체전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당시의 감동을 떠올렸다.

서씨는 "내가 다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분이 좋다"며 "양궁 단체전 6연패의 주인공 공이 고향 후배여서 더욱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